

한중 소화(笑話) 속의 비유표현과 일본소화 속의 미타테(見立て)기법의 비교고찰

김 영 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연을 일본어로는 다코(たこ), 즉 문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연의 꼬리를 보았을 때, 문어의 발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연상행위는 일본어로 미타테(見立て)라고 한다. 미타테는 비유와 비슷하지만, 이 두 개념은 웃음을 일으키는 주안점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소화에서의 비유는 90%의 비슷한 점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일본 소화에서의 미타테는 10%의 비슷하지 않은 점이 웃음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소화의 미타테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중국과 한국소화의 미타테는 인간의 신체적 약점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 소화의 미타테는 인간의 직업이나 기질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동아시아 소화의 미타테는 중국의 언어문자유희에서 온 한자의 파자와 관련이 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자가 쓰여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소화에서 보이는 문자 미타테는 한자와 히라가나, 혹은 가타카나라는 두 개의 서로 이질적인 타입의 문자를 조합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세 번째, 미타테에는 한자의 착각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과 한국 소화에서 특히 많이 보인다. 아마도 이 패턴은 중국의 3자음 언어문자유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소화(笑話), 미타테(見立て), 문자유희(文字遊戯), 동아시아(東アジア), 연상(連想)

1. 머리말

본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룰 '미타테(見立て)'의 개념 및, 미타테가 소화(笑話)속에서 웃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능하는 점을 중심으로 일본 소화의 예를 들어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진행하고,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고사리

어린 아이의 양증맞은 귀여운 손을 한국인은 흔히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표현하는데 반해(<그림 1> 참조), 일본인은 ‘단풍잎 같은 손(紅葉のような手)’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떠올리는 대개의 아기의 손 모양은 고사리처럼 주먹을 쥔 손이지만, 일본인이

떠올리는 아기의 손은 펼친 손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은 또, 단풍잎(楓)을 개구리 손(かえるの手)과 비슷하다고 해서 ‘가에테(かえで)’라고도 부르는데, 아기의 불그레한 펼친 손에서 단풍잎을, 그리고 단풍잎에서 이번에는 개구리의 펼친 물갈퀴 손바닥을 연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류의 언어문화 어디에서고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연상연결을 통한 비유를 일본어로는 ‘미타테(見立て)’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하나의 문예 기법으로서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미타테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예를 들어, 칼처럼 길게 생겼다고 해서 갈치를 ‘다치우오(太刀魚-칼 물고기)’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비슷한 모양새에

착안한 경우는 물론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수 먹는 흉내를 내어 부채를 젓가락으로 미타테 하는 경우처럼, 꼭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이 역시 미타테에 해당된다. 불펜을 손가락에 끼고 담배 연기 내뿜는 시늉을 하면 그 불펜은 담배로 미타테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타테는 인간의 연상뿐만 아니라 착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물을 보고 인간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또 이러한 착각이 해당 인물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부각시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그 이야기는 소화가 되며, 이러한 점에 착안한 소화가 한중일 3국에는 보인다. 특히 일본소화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물에 대한 인간의 착각과 무지를 다룬 이야기가 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다음의 『가루구치 헤소준 레이(軽口へそ順礼)』(1746년 간행) 권4, 제3화 「썩먹의 미타테(物しらずが見たて)」도 그러하다.

어느 찻집에서 시골에서 막 올라 온 하녀를 고용했다. 어느 날, 근처의 장남약사를 불러 오라고 시켰더니, “곧 온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왔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질 않는다. 너무 기다리다 못해 “이거 뭐하고 있는 건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이봐, 네가 갔을 때, 그 약사는 뭐 하고 있던?” 하고 묻자, “아, 그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라고 묻자, “그게요, 톱으로 샤미센(三味線-작은 기타 모양의 세 줄짜리 현악기)을 켜고 있던대고요.” 라고 말했다.¹⁾

1) (去ル茶屋にて、いなかより中居をかゝへけるが、ある時きんじよのざとうをよびにやりしに、いまゆきませふといわれたといふてかへりしが、まてどもノゝ来ず。あまりまちかね、これはなにしておるやら、いかふひまがある。コレ、そちがいたときに、あのざとうはなにしていたととゑば、イヤ、かわったことをしてゝござるといふ。それはどうしたことをしていたといゑば、アイ。のこぎりて、しやみせんひいていられましたといふた。)武藤禎夫『嘸本大系』第8巻, 東京堂出版, 1976, p.107.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하녀는, 사미센(三味線)을 켤 때 쓰는 바치(撥-현을 튕겨 소리를 내는 도구)를 가까이에서 직접 본 일이 없기에, 장님악사가 톱으로 사미센을 연주하고 있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그림 2>, <그림 3>참조.)



<그림 2> 사미센 바치



<그림 3> 톱

이런 오해는 물론 시골뜨기 하녀의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에 의한 것이며, 바치를 톱이라 표현한 자신의 미타테로 인해 하녀 자신이 웃음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가루구치 고젠오토코(輕口御前男)』(1703년 간행) 권2,「삶은 연밥(茹蓮)」에 보이는 다음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시골뜨기, 두세 명이 덴노지(天王寺)에 왔다. 삶은 연밥 파는 걸 보고, 신기한 듯 멈춰 서서서, “거 참 숨쉴 들인 세공일세. 저 구멍은 어떻게 뚫은 걸까”라고 말하자, 또 한 명이 말하길, “이 정도로 세공한 거미집이 다 있구나.” 하고는 샀다.²⁾

시골뜨기들은 삶은 연밥을 거미줄 세공품으로 잘못 알고는 사는데, 그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시골뜨기들의 무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역시 미타테가 이용됨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소화속의 미타테가 이처럼 늘 인간의 무지와 착각에 대한 웃음만을

2) (田舎衆、式三人づれにての天王寺まいり。ゆで藕うるを見て、ふしぎさうに立とまり、扱も手籠た細工じや。あの穴ハ何としてあけた物ぞといへば、又ひとりがいふやう、是ほどのさいくに蜘蛛の巣があるといふて買なんだ。) 武藤禎夫『噺本大系』第6巻, 東京堂出版, 1976, p.242.



<그림 4> 연밥

옆에서 지켜보던 노파가, 이 세 남녀를 ‘미쓰 도모에(生た三つ巴)’로 미타테한 다음과 같은 소화가 보인다.

어느 젊은 미망인 집에, 가부키 배우 오가와 기치타로(小川吉太郎) 같은 외모의 옷집 점원이, “날씨가 좋습니다.” 하고 결눈을 깜박인다. 미망인, “그러네요.” 하고는 결눈을 깜박이는데, 가부키 배우 후지카와 하치조(藤川八蔵)를 빼다 박은 방물장수 남자가 와서는, “뭐 필요 없으세요.”하며 결눈을 깜박인다. 세 사람이 한창 이야기 나누는 중에, 고타쓰(炬燵)에서 불 쬐던 일흔 남짓한 할머니 가늘게 눈을 치켜뜨고는, “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살아 있는 미쓰 도모에 (三つ巴)를 다 보고 말이지.”³⁾

미쓰 도모에는 올챙이 같이 생긴 태극문양 세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 흔히 삼파전을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그림 5> 참조), 노파는 세 사람의 삼파관계를 ‘미쓰 도모에’로 미타테 하며 비꼰 것이다.

노파의 재치 있는 미타테가 웃음을 불러일으킨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상

3) (美しい若後家の所へ、小川吉太郎につり取やうな呉服屋の手代、けつかうな天気でござりますといふて尻目をつかう。後家、左やうでござりますと、しり目をつかう所へ、藤川八蔵作った小間ものやの男か来りて、何も御用ハござりませぬかといふて尻目をつかう。三人が咄しの最中、こたつから七十余りのかみさまが、ほそひ目をあいて、ア、長いきしたれハこそ、生た三つどもへを見た。) 武藤禎夫『噺本大系』第10巻, 東京堂出版, 1979, p.254.



〈그림 5〉 미쓰 도모에

에서 일본소화에서는 미타테가 인간의 무지(착각) 또는 채치에 대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미타테의 패턴들을 동아시아 소화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웃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미타테의 나라별 특징과 차이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미타테의 경우, 2015년 8월 현재 일본 국문학 연구 자료관에 등록된 관련논문만 107건으로, 에도시대의 각종 산문(散文)이나 와카(和歌), 하이쿠(俳句)같은 운문(韻文), 그리고 우키요에(浮世絵)를 포함한 회화 장르처럼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폭 넓게 다루어지고 있는,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또, 국내의 경우, 최 경국씨가 에도시대의 미타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을 닦은 이후, 일본의 우키요에 혹은 문양을 통해 본 미타테 연구의 성과가 후진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나오고 있다.⁴⁾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문학에서 특히 발달한 문예기법으로서의 미타테의 방법적 특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내용과 질은 다르지만 미타테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가 한중 양국문학 속에서도 나름 발전해왔다는 사실 또한 아울러 소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한중일 3국의 미타테 관련 소화는, 웃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미타테가 각국 문학 속에서 각각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미타테 관련 한중일 3국 소화들을 동아시아 소화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김지영, 「우키요에 표현기법으로서의 미타테 연구」, 『日本思想』 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04. pp.265~303. 및 허은주, 「고전문학의 근세적 수용 - 복식에 나타난 미타테(みたて)문양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0, 일본어문학회, 2005.08. 305-322쪽을 참조.

II . 「신체(身体)」와 「기질(氣質)」의 미타테

먼저, 본장에서는 인간의 외모나 신체적 약점을 부각시킨 미타테의 웃음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한중소화와, 그에 비해 인간의 직업적 기질이나 신분적 특징을 부각시킨 미타테의 웃음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일본소화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약점을 미타테 하여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중국소화에서 특히 발달하였는데, 예를 들어, 당나라 시대의 『소해총주(笑海叢珠)』 권3, 「여지(리지) 돈 걸고 따가기(撲壳荔枝)」에서는 딸기코처럼 코가 빨간 백성을 바닥에 누여놓고는, 백성의 코를 여지라는 빨간 색 과일(<그림 6> 참조)로 미타테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보인다.



<그림 6> 여지(리찌)

옛날, 어느 도인이 약을 팔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빨간 코 백성이 도인에게 빨간 코를 낫게 하는 약은 있는지 물었다. 도인은 감탕나무(冬靑) 잎 다섯 장, 물 한 사발, 1문 짜리동전 다섯 개를 받고는, 백성을 땅바닥에 눕혀 감탕나무 잎을 그 코 위에 늘어놓고 물을 입으로 내뿜었다. 그리고는 5문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는 소리쳤다. “자아, 자아, 여기 아주 상등품인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 거는 데 다섯 냥. 자아 돈들 걸고 따 가시라!”⁵⁾

약장수 도인은 백성의 빨간 코를 여지라는 과일로 미타테 함으로써 그 외

5) (昔有一道人売藥、偶見一村人酒查鼻、就問藥於道人、道人令討冬靑葉五朶、水一盞、錢五个來、却令其仰地臥、將冬靑葉排於鼻上、以水噴之、就擲五文於地上、叫云、好个生荔枝、一交五疋、撲一僕) 莊司格一『中国の笑話:笑海叢珠·笑苑千金』, 筑摩書房, 1966, p.288.

모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이 때 웃음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빨간 코라는 신체적 약점이 미타테 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때 미타테는 등장인물의 신체적 약점을 공격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나라의 『소부(笑府)』(1611년 이후 성립, 13권4책) 권10 「긴 얼굴(長面)」에 보이는 다음 이야기 역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말안장을 잃어버린 남자, 얼굴이 길쭉하고 가운데가 푹 꺼진 얼굴의 사람을 보자, 적당히 말안장이라 생각하고는 얼굴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 “이건 내 얼굴이오.”하며 싸움이 되어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 관청에 가서 재판으로 가리게 되었다.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그 사연을 듣더니 긴 얼굴의 남자를 향해, “여보쇼, 말안장 대금 내 주고 마는 게 좋을 거요. 관청에 가면, 분명 댁이 질게 뻘하니 말이요.”⁶⁾

이 이야기에서 웃음의 대상은, 자신의 얼굴이 ‘말안장’으로 미타테된 인물이며, 여기에서도 역시 미타테는 등장인물의 외모를 공격하여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명나라 시대의 『소찬(笑贊)』 제44화 「서자면상(西字臉)」에서는 역시 사천성(四川省)지사(知事)의 네모난 얼굴을 서(西)자로 미타테한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 역시 같은 예라 할 수 있다.⁷⁾ 이는 소화집의 구성에서 한 개의 장은 반드시 인간의 신체를 다룬 이야기들로 구성될 만큼 신체(身體)관련 소화가 발달한 중국소화의 특징적인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⁸⁾ 한편 일본소화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약점을 미타테 하여

6) (有失去馬鞍者、一人面長而凹、認以為鞍也、執之其人曰、「此吾面也」争弁不已、將往聽断于官、有行人問知其故、謂長面人曰、「勸兄賠也、此僂罷、若經官定是断給」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함.

7) (有川官得郡陞辭、宦者奏言、來日有川知州上殿、官家莫要笑、壽皇問曰、「何故」、奏云、「其人裏上禿頭、西字臉也」、蓋其人面大而橫闊、明日朝參、壽皇憶前語、即笑不止、但云、「卿所奏不必宣讀、容朕宮中自看」、贊曰、生成西字臉、做了四川官、良非偶然、此人既到御前、便該留作近臣、長得天顏有喜也) 周作人, 『明清笑話四種』, 人民文学出版社, 1958, p.20.

8) 당나라 시대의 소화집인 『소해총주(笑海叢珠)』의 경우, 권3 신체문(身體門)에는 신체를 웃음의 소재로 삼은 소화들이 모여져 있으며, 명나라 시대의 소화집인 『소부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중국소화처럼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다. 외모를 미타테한 이야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중국소화의 그것과는 미타테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도세 구치마네 와라이 当世口まね笑』(1681년 간행) 권4, 제17화 「사각머리 다른 이름(四方髮の異名の事)」의 다음 이야기를 보자.

사각 머리 무성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 머리 스타일은 현 청사초롱이라 했다. 그 이유는 사각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무성하기에 그렇다고 하자, 모두들, “그러네”하고는 동감했다. 그 중 한 쓸데없는 친구가, 자기도 뭐든 한 건 터뜨리려고, 어느 사각 머리 유학자 오는 걸 보고는, “어이, 현 촛대, 오랜만이야.”하고 말한다. 유학자 듣고는, “현 촛대라니 무슨 소리지?” 하고 묻자, 이 쓸데없는 작자 말하길, “그 쪽 사각 머리 정수리의 네모 접시는, 촛대 기름 붓는 데랑 닮아서 현 촛대라고 한 거야.”⁹⁾

‘사각머리’를 ‘청사초롱’이라고 표현한 멋진 미타테에 모두들 감탄하고 있는데, 이 쓸데없는 자는 자기도 똑같이 흉내 내어 멋지게 남들을 감탄시키려 했지만, 기름에서 연상한 현 촛대라는 억지 미타테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타테가 타인의 신체외모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소화와 비교해 볼 때, 이 소화에서의 미타테는 그러한 성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소화에서는 미타테가 인물의 신체적 약점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신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상의 기질을 부각시켜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긱케코(滑稽

(笑府)」의 경우에도, 권10 형체부(形体部)에 역시 신체를 다룬 소화들이 보인다. 9) (四方髮のむさきおとこあり。異名を古行燈といふ。こゝろは、四方髮にあふらじむほど、むさうなるゆへといへハ、皆人、尤と同心する。中にひとりそさうもの、なんでもどこぞてやろとたくミしところへ、ある四方髮の儒者きたりしを、やれ、ふるとうだい、ひさしいのといふ。儒者聞て、古とうだいとはいかにととへハ、 籠相者がいふやうハ、其方のあたまのさらハ、あふらつぎにも似やう程に、ふるとうだいといふた。) 武藤禎夫, 『嘶本大系』 第5卷, 東京堂出版, 1976, p.175.



〈그림 7〉 3대째 사와무라 소주로

好』(1801년 간행) 「성대모사(こわ色)」에서는 올챙이 두 마리를 유라노스케(由良之助)의 몬도코로(紋所)인 후타쓰 도모에(二つ巴)(〈그림 7〉의 두 개짜리 태극문양)¹⁰⁾로 미타테 하여 가부키(歌舞伎) 배우인 사와무라 소주로(沢村宗十郎)의 버릇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보인다.

“거북이씨, 성대모사 한 번 해 보시죠.” “그러면 한 번 해 볼까요.” “바로 그 때 무대에 나오는 것은 사와무라 소주로(沢村宗十郎)였던 것이었다.(성대모사)” 하고는 부채를 얼굴에 대고는

“유흥에 빠져 들어 술 퍼먹다 제 정신 다 잃고 일본 제일가는 바보의 거울이라,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새끼가 되누나.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새끼가 되누나.”라고 성대모사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자 친구가, “이보게, 이봐, 거북이씨,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새끼가 된다고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하는 거지?” 라며 웃자, 거북이, “히 참, 개구리 새끼는 올챙이잖아?” “그야, 다 아는 얘기지.” “그 올챙이가 둘 나란히 있으면 유라노스케(由良之助)의 몬도코로(紋所) 라니깐.”¹¹⁾

10) 歌川豊国画, 「三世沢村宗十郎の大星由良之助」錦絵大判, 37.2×25.5cm. 1796년 4월, 기리좌(桐座)에서 행한 가부키교겐(歌舞伎狂言) 「에도노하나 아코시오가마(江戸花赤穂塩竈)」에서 3대째 사와무라 소주로(三世沢村宗十郎)가 호오시 유라노스케(大星由良之助)배역을 연기한 모습을 그린 그림.

11) (龜、壺つやらねエカ。龜そんならば壺つつかひやせう。じよにますは、沢村宗十郎で御座りますと、扇を顔にあてゝ、コハセ遊興にふけり、大酒にしやうねをうばはれ、日本一のあほうの鏡、かいるの子はかいるになるナ、かいるの子ハかいるになると、同じことを二つ言と、友達が、これ十、龜ぼう。かいるの子ハかいるになると、同じ事をなぜ二つやらかした(十ウ)とわらへは、龜ハテ、かいるの子ハおたまじやくしてハないか。友達したることよ。龜其おたまじやくしが二つならぶと、由良之助が紋所だハナ。) 武藤禎夫, 『断本大系』 第13卷, 東京堂出版, 1979, p.331.

이 미타테는, 조루리(淨瑠璃)작품인 「가나데혼 주신구라(仮名手本忠臣藏)」에 등장하는 유라노스케(억울하게 자결한 주군의 복수를 한 역사상의 실재인물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内蔵助)를 모델로 한 주인공)역을 곧잘 맡았던 가부키 배우 사와무라 소주로(沢村宗十郎)가 만년에 자꾸 대사를 까먹고는 했던 대사를 두 번 반복한 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아,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새끼,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새끼(蛙の子は蛙の子, 蛙の子は蛙の子)’, 즉 올챙이 2마리라고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올챙이는 일본에서 오늘날에도 ‘국자’ 혹은 ‘음악부호(♭)’로 흔히 미타테 되는데, 개구리 속담에서 올챙이 두 마리로, 그리고 유라노스케의 후타쓰 도모에(二つ巴)문양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연상 연결과 미타테가 사와무라 소주로라는 배우의 기질적 특징을 재치 있게 잡아내어 웃음의 대상으로 만든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가쿠타이코(楽牽頭)』(1772년 간행) 「생선 장사(肴売)」에는 생선장수가 사(司)자에 대해, “동(同)자를 한 쪽만 회 떠내고 뼈에 붙은 남은 쪽.”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 역시 파자(破字)유희에 생선장수의 직업적 특성을 억지로 연결시킨 ‘직업기질’의 미타테라 할 수 있다.¹²⁾

그리고, 이 외에도 『세사이쇼(醒睡笑)』(1623년 서문)권5 「젠 체 하는 마음(華奢心)」 제3화에는, 밥주걱을 생선 처음 보고는 ‘도깨비 귀 후비개’라고 놀래는 귀하신 궁중 마나님이 등장하며, 『아고노 가케가네(臈の掛金)』(1799년 간행) 「미타테(見立て)」에는 선인장을 처음 본 생선가게 주인 아들이 ‘싱싱하고 힘 좋은 해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인다.

작은 귀 후비개를 본 적은 있어도 밥주걱을 본 적이 없는 귀하신 궁중 마나님과, 역시 평소에 생선 밖에는 본 적이 없는 생선가게 아들의 무지와 착각을 각각 신분 또는 직업적 기질과 억지로 연결시켜 ‘밥주걱’을 큼지막한 ‘귀신

12) (つかぬはなしだが、司といふ字ハどふ書の。さればの。おらが師匠にハない字だ。アレノ、むかふを通る肴売が大イの学者だ。呼て聞ふと、さかなやをよび込ミ、「喜八どの。司といふ字ハどふかくの」。「それハこふいふ字さ」。「どふいふ字だの」。「言にてハちといふに。こふさ。同といふ字を片身おろして、骨付キのほふさ」。)武藤禎夫, 『噺本大系』第9巻, 東京堂出版, 1979, pp.34-35.

귀 후비개'로, '선인장'을 힘 좋은 '해삼'으로 미타테 함으로써 웃음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 귀 후비개나 해삼 따위의 생선류 밖에는 본적이 없는 귀하신 마나님과 생선장수 아들의 신분적, 직업적 특성을 미타테를 이용하여 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일본소화에서는 등장인물의 연령이나, 직업, 신분상의 기질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이 같은 패턴의 미타테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가타기모노(気質物)¹³⁾라는 문학 장르가 발달한 에도문학의 웃음의 경향이 소화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인물의 기질적 특성을 다룬 소화가 에도하나시본에서는 풍부하게 보이며, 다음의 『시카노부자에몬 구텐마나시(鹿野武左衛門口伝はなし)』(1683년 간행, 3권) 하권, 제10화 「세 사람의 웃긴 이야기(三人軽口)」도 등장인물의 그러한 가타기(신분적 직업적 특성)를 미타테를 통해 나타낸 경우라 할 수 있다.

우에노(上野)의 찻집에서 여자가 차를 끓이고 있는데, 고야산(高野山)의 스님, 그리고 봉사, 천 염색업자가 둘러 차를 마시게 되었다. 이 때, 고야산의 스님이 말하길, “여기 우에노의 ‘노’ 자는 고야산의 ‘노(野)’자 이지요.” 그러자 천 염색업자가, “아니죠, 아니죠. 가타카나의 ‘노(ノ)’자겠죠.” 그러자 봉사가, “사람이 지팡이 짚는 모양의 한자부수의 ‘노(乃)’자가 아닐까요.” 라고 말한다. 차 끓이고 있던 아가씨 말하길, “아노, 아노. 우에노의 ‘노’ 자는 다스키(禰-땃빵의 일종)의 ‘노(乂)’ 자예요.” 라고 말했다더라.¹⁴⁾

고야산(高野山)은 헤이안(平安)시대의 고승(高僧) 구카이(空海)가 신곤슈(真言宗)를 개창한 일본불교의 2대 성지이며, 따라서 고야산에서 온 스님은 우에노(上野)의 노(野)자를 고야산(高野山)의 노(野)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13) 인간을 신분과 직업, 연령대 등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유형화하여 골계적으로 그린 에도시대의 한 작품장르이다. 예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세켄무스코카타기(世間子息気質)-요즘 자식들 기질』와 『세켄무스메카타기(世間娘気質)-요즘 딸들 기질』, 『우키요오야지가타기(浮世親仁形気)-요즘 예비들 기질』와, 우에다 아키나리 上田秋成의 『세켄메카게가타기(世間妾形気)-요즘 첩들 기질』 등의 작품들이 있다.

14) 武藤禎夫, 『嚙本大系』第5卷, 東京堂出版, 1976, p.197.



〈그림 8〉 다스키

이다. 천 염색업자(紺屋)가 왜 가타카나 노(/)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염색작업에서 사용한 막대와 같은 염료를 끓일 때 휘젓는 도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봉사(座頭)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걸기에 지팡이 노(乃)자라 말한 것이며, 다스키(褌)를 걸치고 늘 일하는 복장을 하고 있는 찻집 여자(茶屋女) 역시 직업 특성이 드러나는 다스키의 노(乂)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림 8> 참조)

네 가지 직업의 기질적 특성을 네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문자들(野·ノ·乃·乂)로 보기 좋게 미타테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에서도 역시 신분과 직업특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일본소화의 가타기모노(氣質物)적인 특징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 하겠다.

III . 문자의 미타테-파자(破字)와 복합(複合)

한편, 동아시아 소화 속에 보이는 미타테에는 공통적으로 한자(漢字)를 파자(破字)하는 문자유희 형태의 것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위의 일본소화에서는 ‘노’라는 같은 발음이 나는 4가지 문자를 직업 기질별로 4가지 형태로 각각 미타테 했지만, 다음의 중국민간소화에서는 ‘왕(王)’자와 비슷한 4개의 한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파자(破字)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아내가 왕씨(王氏)인지라 ‘왕(王)’자 밖에는 모르는 어느 무식한 관리 남편이, ‘왕(王)’씨, ‘광(匡)’씨, ‘간(干)’씨, ‘모(毛)’씨 성을 가진 네 명의 천호(千戶)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왕씨(王氏)성을 가진 첫 번째 천호의 이름

부르기는 일단 성공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천호들의 성을 읽을 수 없자 관리 남편은 다음과 같이 엉터리로 호명을 하게 된다. 즉, 각각 “갑을 씩운(ㄱ + 王) 왕 천호-원래는 광 천호(匡千戶)!” “의자가 없어 앓을 수 없는(王一一) 왕 천호-원래는 간천호(干千戶)!” “꼬리를 쳐든(王 + ㄷ) 왕 천호-원래는 모천호(毛千戶)!”라 호명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¹⁵⁾

참고로, 『소부(笑府)』 권10, 「곰보가 된 왕(王)자 글자(王麻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그러한 선행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왕(王) 자 하나 밖에 모르는 가정교사가, 왕씨(王氏)인 주인집 아들 세 명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 주는데, ‘왕(王)’자의 머리 쪽에 점을 찍고는 ‘주(主)’, 오른쪽 아래에 점을 찍고는 ‘옥(玉)’, 마지막으로 왕(王)자의 네 군데에 모두 점을 찍고는 ‘곰보(麻子)’라고 엉터리로 읽는 장면이 명나라 소화집 『소부(笑府)』에는 보이는 것이다.¹⁶⁾

이 같은 파자형의 문자 미타테는 일본소화에서도 물론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가루구치 고젠오토코(軽口御前男)』(1702년 간행) 권1, 「반찬가게 간판(煮売り屋の看板)」에는, ‘술안주(酒肴)’ 라고 쓰인 가게 간판을 보고 ‘술 또 있음(酒又有)’이라고 잘못 읽는 경우를 소재로 삼은 내용이 보이며, 『쓰유 신가루구치 하나시(露新軽口はなし)』(1698년 간행) 권4, 제6화 「문자 쓰기(字の書きよう)」에는 ‘음(音)’자를 해서체(楷書体)로 쓰려면 ‘육백(六百)’이라 쓰고, 초서체(草書体)로 쓰려면 ‘칠백(七百)’으로 쓰라는, 역시 파자형의 문자 미타테가 보인다.¹⁷⁾(<그림 9>, <그림 10>참조)

15) (第二名姓匡、他便改口道、「上厘床的王千戶」第三名性干、他也能隨機應變地呼道、「沒凳坐的王千戶」、最後一名性毛、他也大声地叫道、「翹尾巴的王千戶」聞者無不大笑不已)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94쪽.

16) (有姓王而麻者、或嘲之云、一蒙師止識一王字、主人適姓王、有三兒、求名、乃于王字上加一点、問傍人識此字否、曰、「是主字」、師接口曰、「正是主字」即名長徒曰王主、又于王字右加一点、問如前應曰、「玉字也」、復接口曰、「正是玉字」即名次徒曰王玉、至第三徒左加一点、問人、則曰、「無此字」、再加右点問人、股曰、「無此字」、上下左右皆点、又云、「無此字」、乃乱点曰、喚他王麻子便子) 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함.

17) (さる人、くわんおんのをんの字ハ、どうやらかくといひけれバ、ある人、さ

音 音 音 音

[그림9] 왼쪽에서 3 번째 해서체



〈그림 10〉 초서체

한편, 이 같은 파자형 문자 미타테는 소화제작자의 재치가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잇큐 간토바나시(一休閑東咄)』(1672년 간행) 하권, 제1화 「문자 근원 찾기(文字ぜんさくの事)」에는 ‘죽(粥)’ 자의 유래를 묻는 사람에게 잇큐 스님이 재치 있게 대답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보인다.

잇큐(一休)스님, 먼저 죽(粥)을 끓여 사람들에게 권했다. 하지만 대답이 떠오르지 않자, 죽 그릇에 젓가락 둘을 푼하고 걸치더니, “이러니 보이네. 그야말로 양 옆에 활 ‘궁(弓)’ 자를 쓰고 가운데에 쌀 ‘미(米)’ 자를 쓰네.” 라고 대답했다.¹⁸⁾

れば、しんにかけバ六百と書、さうにかけバ七百と申されし。)武藤禎夫『嘶本大系』第6卷, 東京堂出版, 1976, p.213.

- 18) (まつ粥をたきて人々にすゝめ給ひけり、されとも思しめし出されざりければ、しんのううつわ物に箸をからりとおかせ給へハ、かくのことに見えたり、さてこそ両わきに弓をかきて、なかに米をかくなりとこたへ給ふ。)武藤禎夫, 『嘶本大系』第3卷, 東京堂出版, 1976, p.197.

왜 ‘죽(粥)’이라는 한자에 ‘쌀(米)’자가 하나, ‘활(弓)’자가 두 개 있는지 묻는 짓곳은 질문에, 잇큐 스님은 젓가락 두 개를 죽 그릇에 걸쳐 놓고는 재치 있게 미타테 한 것이다(弓 + 米 + 弓 = 젓가락 한 짝+밥+젓가락 한 짝). 그리고 이 같은 파자형의 문자 미타테는, 때로는 사람의 몸이 문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가루구치 고젠오토코(軽口御前男)』(1703년 간행) 권1, 「미타테 문자(見たての文字)」는 그 좋은 예이다.

옆에서 폼추인 자가 담뱃대를 물고 있는 걸 보고는, 친구가 말하길, “자네가 담뱃대 물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지팡이 짚는 노(乃)자 일세 그려.” 하고 미타테 하자, 폼추 화를 내고는 담뱃대를 옆구리에 끼고는 “이래도 놀릴 거냐?” 하자, “그렇게 하니, 그야말로 급(及)자 일세.” 하고는 웃었다.¹⁹⁾

폼추가 담뱃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노(乃)자로 미타테 하자 폼추는 담뱃대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자세를 바꾸지만, 이번에는 급(及)자로 다시 미타테 되고 만 것이다. 폼추라는 신체적 결함을 미타테한 공격적인 웃음이 보이는, 일본 소화에서는 드문 경우인데, 이 같은 미타테는 아무래도 에도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중국소화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에도시대에 일본에 유입된 『소부(笑府)』 권5, 「중매쟁이(媒人)」에도 역시, 폼추인 남녀 두 사람의 혼담을 주선한 중매쟁이가 이의를 제기하는 양쪽 집안사람들에게 문자 미타테를 하는 이와 비슷한 발상의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폼추 남자가 중매쟁이에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예쁜 아내를 얻고 싶소. 혹시 혼담이 성사되면 사례는 충분히 하리다.” 하고 말했다. 한편, 나이가 찬 폼추 딸을 둔 집이 있어 역시 같은 부탁을 중매쟁이에게 했다. 중매쟁이는 양가를 오가며 혼담을 성사시키고는 드디어 혼약을 치르게

19) (よそにせむしなる人、煙草すいつけるを見て、友たちのいふやう、其方のたばこ呑るゝハ、そのまゝつえつきの乃の字じやと見たてければ、せむしはらをたて、きせる小わきにかいこみ、なぶるかど儀勢しければ、さうしやれば、悉皆、及といふ字じやとわらへれた。) 武藤禎夫, 『嘶本大系』第6巻, 東京堂出版, 1976, p.234.

되어 서로 상견례를 했는데, 양쪽 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매쟁이는 “괜찮다고요. 시험 삼아 팽이를 가져 오지요.” 하고는 팽이를 두 꼽추 남녀의 등 사이에 놓고는 두 사람을 등지게 했다. “봐요 이렇게 잘 어울려서 물 수(水)자가 되잖아요.”²⁰⁾

두 꼽추의 등 사이에 팽이(丿)를 놓아 물 수(水)자로 미타테 함으로써(>+丿+(<=水), 꼽추라는 신체적 약점을 비웃은 이야기인데, 이 같은 중국소화의 파자형 문자 미타테의 방법이 일본소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파자형 문자 미타테를 이용해 재치의 웃음을 발생시킨 또 다른 예로는, 『리쿠쓰 모노가타리(理屈物語)』권2, 제7화「문자에 대한 재치 이야기(文字に付ての才覚の事)」의 다음 장면을 들 수 있다.

옛날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던 아무개라는 하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문자에 대해 재치가 있어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문자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었다. 어느 때, 다카카게가,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뜰에 있으면서 나무에 걸터앉아 머리에 풀잎을 올려놓고는 이 자를 불러서는, 물건 이름은 안 밝히고 그저 “가져 오너라.”라고만 말하자, 그 하인 곧 알아차리고는 차(茶)를 끓여 가져 왔다. 다카카게는 크게 감탄하였다 한다.²¹⁾

20) (有疾背男子属媒人曰、「我寧捐厚聘、必欲擇一美婦、事成、許以厚謝適一女?病疾、而属媒亦如之、媒亦如之、媒陰為兩家說合、及合讞、相見、各詫曰、「不成事矣」媒曰、「不妨」試取鋤来、乃置鋤于中、而今二疾東西倚之、措曰、「這不是個水字」)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함.

21) (むかし、小早川隆景といふ人の御内に、めしつかはるゝ、何それがしとやらんいへる下人あり。此もの文字につきての才智ありて、いかやうのむつかしき事も、文字にあたりたる事なれば、わきまへしらずといふ事(七才)(七ウ挿画)なし。あるとき隆景、この者が智恵をためさんが為に、庭へおり、木にこしをかけ、頭に草の葉をいたゞきて、かの下人をよびよせ、それと名をさゞずして、たゞ、もちて来れ、とのミいひければ、かの下人やがてさととりて、茶をたてゞもち来れり。隆景大にかんじ給ひけると也。) 武藤禎夫, 『断本大系』 第2巻, 東京堂出版, 1976, p.231.

하인은 다카카게의 머리 위에 놓인 풀잎(艸)과 그 아래의 다카카게라는 사람(人), 그리고 다카카게가 걸터앉은 아래의 나무(木)를 조합하여(艸+人+木=茶), 즉 차(茶)를 가져 오라는 뜻이라고 금방 알아 차렸던 것이다.²²⁾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처럼 사람이 직접 ‘인(人)’자 등의 한자를 나타내는 이러한 방법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일찍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조선소화에서도 역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譚)』에는, 노인에게서 문자를 배운 세 딸이 문자 미타테를 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보인다.

한 노인이 세 딸에게 문자를 가르쳤다. 큰딸이 머리에 갓을 쓰고 나와서는, “저는 안(安) 자입니다.”라고 하자, 노인이 “잘했다.”라고 했다. 둘째 딸은 아들을 안고 나와서는, “저는 호(好)자입니다.”라고 하자, 노인은 또, “잘했다.”라고 했다. 막내딸은 나이가 아주 어린데, 알몸으로 몸을 기울인 채 한쪽 다리를 들고 서서 말하기를, “저는 가(可)자입니다.”라고 하자, 노인이 가만히 보고 나서 말했다. “입 구(口)자가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可)자다.”²³⁾

남송의 『소원천금(笑苑千金)』 「글자를 만들어 장수를 축하하다(排字上壽)」에 시아버지의 생일 때, 첫째 며느리가 양 손에 두 딸을 이끌고 나와 ‘간(姦)’자를 만들자,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호(好)’자를 만들고, 셋째 며느리가 한쪽 다리를 뻗어 ‘가(可)’자를 만들어 각각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장면이 보이기 것으로 보아,²⁴⁾ 『어우야담』의 이 문자 미타테는 중국

22) 에도말기에 간행된 일본 에도(江戸), 오사카(大阪), 교토(京)의 풍속백과사전인 『모리사다 만코(守貞漫稿)』(35권, 1837-1867년)에, 나가사키(長崎)에 온 청나라 사람이 ‘차 상자(茶箱)’에다, ‘사람(人)이 풀(艸)과 나무(木) 사이에 있고, 눈(目)이 있고, 두 대나무(竹)에 나무(木)가 하나 옆에 있네(人在草木間 目有二竹木傍一(艸+人+木=茶, 目+竹+木=箱))’라고 썼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이미 이러한 파자형 미타테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23) (有一翁教三女, 皆以文字, 長女頂冠而出曰, 「吾乃安字」、翁曰, 「善」、次女抱子而出曰, 「吾乃好字」翁曰, 「善」、季女年最幼, 赤体側身, 举一股而立曰, 「吾乃可字」翁熟視之曰, 「口字少斜, 然亦可矣」) 유몽인, 『어우야담』 원문편, 신익철 외 옮김, 돌베개, 2006, 316쪽.

소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또, 서거정(徐居正)의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 제140화에서는 남녀 세 사람의 입 세 개와 몸 세 개를 각각 ‘품(品)’자와 ‘천(川)’자로 미타테 한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 역시, 중국소화의 미타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이 같은 파자형 미타테는 중국고전에서도 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위(魏)나라의 조조(曹操)가, 술통 뚜껑위에 ‘합(合)’자라고 써서 술을 돌린 일화는 유명하다. 『세설신어(世說新語)』 「捷悟第十一」에 의하면,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지만, 양수(楊脩)라는 부하만이 ‘한 사람당 한 입씩(人 + 一 + 口 = 合)’이라고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²⁶⁾

한편, 일본 소화에서는 이질적인 문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독특한 문자 미타테의 형태가 보인다. 예를 들어, 『고토시 바나시(今歲咄)』(1774년 간행) 「메뉴(献立)」에는, 국을 의미하는 한자 즈(汁)자를 히라가나 케(け)자로 미타테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자아, 그럼 거기에 쓰라고. 우선 국 즈(汁)자.” “아아, 즈 자는 어떻게

- 24) (長媳婦已生二女、遂兩手牽兩女、近前曰、「上覆公公、我姦字」勸公公一盃酒、次媳婦只有一男子、遂牽近前曰、「公公、我好字」、勸公公一盃酒、第三房媳婦、年幼方嫁婦、未有子息、...(中略)...告公公曰、「爾媳婦可字」勸公公一盃酒、公公說、「可字也是、只是口歪了些个、座客莫不大笑」) 莊司格一, 『中国の笑話:笑海叢珠·笑苑千金』, 筑摩書房, 1966, p.306.
- 25) (何如今夜會 /어찌하여 오늘 밤 모임에는. 三個共衾眠/세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여 자도다. 開口能成品/입 벌리면 품(品)자를 이루고. 並身忽作川/몸을 나란히 하면 천(川)자를 이루네. 胸前難兩合/두 사람 중 어느 한쪽오로만 몸을 향하기 어려운 것은. 背後飽双拳(어느 쪽을 향하든) 등 뒤로 두 사람의 주먹을 번갈아 실컷 맞기에. 未遂鴛鴦夢/원앙의 꿈 이루지도 못하고. 堪嗟負好緣/아, 좋은 인연은 저버렸도다.) 시귀선 외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194-195쪽. 참고로 중국의 민간소화를 모은 『견표구집(堅瓠九集)』에도 이와 유사한 시가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진,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酒令)형 소화」, 『동양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4.09, 31-34쪽 참조.
- 26) (人餽魏武一桮酪、魏武噉少許、蓋頭上題「合」字、以示眾。眾莫能解。次至楊脩。脩便噉曰：「公教人噉一口也、復何疑？」) 甲斐 勝二 「新·中国語文教学の周辺(其1)：言葉遊びを巡って：宋連昌《漢字謎語》前言翻訳」, 『福岡大学人文論叢』, 38/2, 2006, p.500.

쓰지?” “참 내, 삼수번(三)에 열 십(十)자라고.” “아하, 오쓰케(おつけ-밥과 함께 나오는 된장국)의 케(け)자로군.”²⁷⁾

한자 즈(汁)자를 모르는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소화인데, 그 무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즈 자가 히라가나 케(け)자와 서로 비슷한 점에 착안한 미타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된장국을 가리키는 일본어 오쓰케(おつけ)의 히라가나 케(け)자와 한자 즈(汁) 자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소화 제작자의 재치 또한 엿보인다 하겠다.

한자와 가나라는 서로 이질적인 문자들을 서로 연상 연결한 점이 특이한데, 이 같은 경향은 오늘날 일본인들이 안(安)자의 부수 ‘宀’를 가타카나 ‘우(ウ)’로, 사(写)자의 부수 ‘冫’를 가타카나 ‘와(ワ)’로, 거(去)자의 부수 ‘厶’를 가타카나 ‘무(ム)’로, 동(洞)자의 부수 ‘冂’를 히라가나 ‘케(け)’로, 상(爽)자의 부수 ‘爻’를 가타카나 ‘메메(メメ)’로, 사(私)자의 부수 ‘禾’를 가타카나 ‘노(ノ)’와 한자 ‘기(木)’로, 살(殺)자의 부수 ‘爿’를 가타카나 ‘루(ル)’와 한자 ‘마타(又)’로 읽는 데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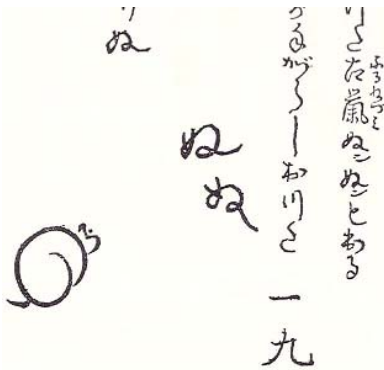
또, 고(高)자의 부수 ‘丩’를 ‘냄비뚜껑’으로, 화(化)자의 부수 ‘匕’를 ‘약술가락’으로, 장(匠)자의 부수 ‘匚’를 상자로, 우리나라에서 속칭 당구장 표시로 불리는 ‘※’를 ‘미(米)’자로, 한자와 사물 간 양방향 미타테가 제한 없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에서도 문자의 미타테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타인지, 일본소화 속의 문자 미타테 에서는 이질적인 문자의 복합양상이 흔히 목격된다. 한 예로, 『에바나시 토지바이(画ばなし当時梅)』(1810년 간행)에는 쥐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히라가나 ‘누(ぬ)’와 가타카나 ‘웅(ン)’으로 표현한 다음과 같은 소화가 보인다.

엿부터 사람들이 아는 오래된 쥐가 능,능(ぬん,ぬン)하고 나왔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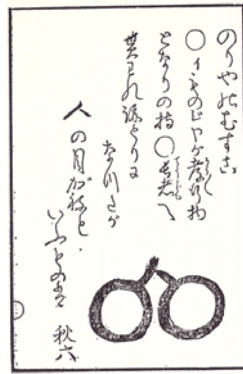
27) 「「サアそんなら、そこへ書や。マツ汁」。「ア、汁といふ字ハ、どふじやな」。「ハテ、さんずいに十の字サ」。「エ、おつけのけの字か」。)武藤禎夫, 『嚙本大系』第9卷, 東京堂出版, 1979, p.138.

28) (昔から人の知った古鼠、ぬン ぬンと出る。) 武藤禎夫, 『嚙本大系』第19卷, 東京堂出版, 1979, p.44.

쥐의 모습을 누(ぬ)자로, 쥐가 기어 나오는 모습을 응(ン)자로 표현한 것인데(<그림 11> 화살표(↑)쪽의 작은 글자 참조), 마치 만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미타테라 할 수 있으며, 서로 이질적인 문자들이 복합되는 이 같은 문자 미타테의 경향은 동 소화집에서 역시 보이는, 동그라미 사이에 사람 인(人)자를 그려넣어 두 동그라미를 연결시키고 안경이라 미타테한 경우(○ス○)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참조)²⁹⁾



<그림 11> 쥐(ぬ+ン)



<그림 12> 안경

일본 소화에서 보이는, 서로 이질적인 문자들의 이 같은 복합의 경향은, 히라가나 ‘구(く)’자와 가타카나 ‘노(ノ)’자, 그리고 한자 ‘일(一)’자를 합하여 (く+ノ+一) ‘계집 녀(女)’자를 만들고 여자 난자(忍者), 즉 ‘구노이치(くノ一)’라 부르는 일본의 은어(隱語)표현에서도 또한 엿볼 수 있으며, 서로 이질적인 문자와 문자가 결합하여 이처럼 그림을 이루는 경향은, 「헤마무쇼 뉴도(へまむしょ入道)」³⁰⁾라는 일본의 문자 그림(文字絵)에서도 확인할 수 있

29) 武藤禎夫, 『噺本大系』第19卷, 東京堂出版, 1979, p.53.

30) 헤마(へま)는 일본어로 헤비(へび), 즉 뱀의 어원이며, 벌레에 속하므로 일본어로 무시(むし)라고 한다. 요(よ)는 일본어로 밤(夜)을 나타내며, 뉴도(入道)는 스님 혹은 중머리를 한 요괴를 의미한다. 1676년경에 출판된 바킨 馬琴의 『엔페키겐키(遠碧軒記)』에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대표적인 사찰중 하나인 교토 京都의 쇼렌인(靑蓮院)에 이 그림이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쇼렌인에 400년 이전에 그려진 헤마무쇼



〈그림 13〉 헤마무쇼뉴도

다.(〈그림 13〉 참조)³¹⁾

즉, 가타카나의 ‘헤마무쇼(へまむしょ)’와 한자의 ‘뉴도(入道)’를 합하면 이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머리가 ‘헤(へ)’, 눈썹과 눈이 ‘마(マ)’, 코가 ‘무(ム)’, 입과 턱이 ‘시(シ)’, 귀가 ‘요(ヨ)’, 그리고 상반신이 ‘입(入)’자이고 하반신이 ‘도(道)’자의 흘림체이다. (〈그림 14〉 참조.)

아무튼 일본소화에서 흔히 보이는 이질적 문자들이 복합된 형태의 이러한 미타데는 동 아시아의 전통적인 파자형 문자유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자의 복합은, 오늘날의 일본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그림 그리기 노래(絵描き歌)’(〈그림 15〉 참조)나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그림문자(絵文字)’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면 관계상 향후 다른 논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4〉 헤마무쇼뉴도



〈그림 15〉 그림그리기 노래

뉴도가 있다. 그 그림 사람을 몰라 유감이다. (青蓮院にへまむしょ入道の四百年以前の物あり。その筆者不知惜哉。)』遠碧軒記/黒川道祐 (日本隨筆大成 第1期 第10卷/日本隨筆大成編輯部編, 東京: 吉川弘文館, 1993【US1-E7】)

31) 山東京伝画 (朝倉治彦監修, 『訓蒙図彙集成』第18卷, 大空社【UR1-G54】)

IV . 문자의 착각과 삼자음(三字音)소화와와의 관계

한편, 서로 비슷한 문자에 대한 인간의 착각과 무지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중국소화에서는 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또한 문자의 미타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소부』권2, 「천 자(川字)」에서는 ‘천(川)’자와 ‘삼(三)’자를 착각하는 엉터리 선생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보인다.

어느 선생이 ‘내 천(川)자’ 하나만 유일하게 알고 있었다. 제자로부터 편지가 왔기에 그 안에서 ‘내 천(川)’를 찾아내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는 몇 장이나 넘겨봐도 나오질 않는다. 겨우 ‘석 삼(三)’자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했다. “여기저기 찾아도 없더니만, 요놈, 이런 데서 쳐 자빠져 자고 있었네.”³²⁾

‘천(川)’자와 ‘삼(三)’자를 구별 못하는 선생의 어리석음을 비롯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서로 비슷한 두 개의 문자를 연상 연결한 미타테이기도 한 것이다. 즉, ‘천(川)’자와 ‘삼(三)’자를 서로 연상 연결하는 미타테가 이 소화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문자의 착각을 소재로 삼은 이 같은 연상 연결의 패턴은, 중국소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소화에서도 물론 확인되는데, 홍만종의 『명엽지해(冥葉志諧)』 제54화 「번간구우(煩簡俱迂)」 또한 이와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즉, 어느 백성 둘이 소장을 관아에 내고 송사를 벌이자, 태수는 쓸데없는 송사를 멈추라는 의미에서 ‘무(毋)’자를 적어 판결문을 내리는데, 아전은 그만 송사를 일으킨 자의 ‘모친(母)’을 잡아 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³³⁾

‘무(毋)’자를 ‘모(母)’자로 잘못 읽은 이 같은 무지와 착각을 다룬 소화가 『소부(笑府)』권2, 제75화 「독과구(讀破句)」에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³⁴⁾ 이

32) (一蒙師止識一川字、見弟子呈書、欲尋川字教之連揭數葉無有也、忽見三字、乃指而罵曰、「我着處尋你不見你到睡在這裡) 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함.

33) (又一氓有呈狀相訟者、兪欲其止之、題給一毋字、吏捉其人之母以告、兪曰、「毋即禁止之辭、爾何以不識字義、捉其母而來耶) 시귀선 외,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482-483쪽.

이야기 역시 중국소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같은 문자의 착각은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웃음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소화 제작자의 미타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명엽지해』 제50화 「몽학강교(蒙學強敎)」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 왈(曰)’자를 ‘날 일(日)’자로 착각하여 ‘자왈(子曰)’을, ‘자일(子曰)’로 잘못 읽는 어리석은 선생이 등장하는데, 유사한 한자를 착각하는 소화 속의 등장인물 자신은 물론 미타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폭로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유사성에 착안하여 소화 제작자가 해당 한자와 유사한 문자들을 나열한 경우, 이것은 문자의 미타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음에 소개하는 『명엽지해』 제76화 「우장직실(右丈直實)」 역시, 기본적으로는 문자의 착각을 다루어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화제작자의 문자 미타테가 발휘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어느 연회모임에서 어리석은 선비가 시를 읊었는데 엉망이었기에 그 출처를 묻자 선비가 ‘고문진보(古文眞寶)’를 ‘우장직실(右丈直實)’로 잘못 대답하는 것이다.

“암송한 그 시는 어느 책에 실려 있는 것인가?” 어리석은 선비가 대답했다. “『우장직실(右丈直實)』이라는 책일세.” 대개 이 시는 강절(康節)의 작품이고,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실려 있는 것인데, ‘고문진보(古文眞寶)’ 녀 자는 ‘우장직실(右丈直實)’ 녀자와 더불어 글자의 모양이 비슷했기 때 문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³⁵⁾

34) 『소부』에 보이는 이야기에서는, 『예기(禮記)』에 보이는 「임재무구득, 임재무구일(臨財毋苟得 臨財毋苟免)」이라는 문구의 ‘무구(毋苟)’를 ‘모구(母狗)’로 잘못 읽은 엉터리 선생이 등장한다. 선생은, 염라대왕으로부터 생전에 글을 잘못 읽은 벌로 개(狗)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의 ‘무구(毋苟)’를 쓴답시고, 그만 ‘엄마 개(母狗)’로 만들어 달라고 잘못 애원한다. (一說、二蒙師死、見冥王、一係讀別字者、一係讀破句者、勸畢別字者罰為狗、破句者罰為猪、別字者請為母狗、王曰、「何也」曰、「禮記云、臨財毋狗得、臨難毋狗免」、做猪者、請生南方云云) 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함.

35) (傍人又問曰、「子所誦詩在於何書」、蒙士曰、「在於右丈直實冊耳」、蓋此詩乃康節之作而載於古文眞寶、古文眞寶四字 與右丈直實四字、字樣彷彿故也、

‘고(古)’자를 ‘우(右)’자로, ‘문(文)’자를 ‘장(丈)’자로, ‘진(真)’자를 ‘직(直)’자로, ‘보(寶)’자를 ‘실(實)’자로 각각 잘못 읽은 문자의 착각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지만, 이야기에는 소화 제작자의 미타테 의식이 분명 흐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바로 뒤에, 글을 잘 모르는 선생이 ‘옥옥호문재(郁郁乎文哉)’를 ‘도도평장이(都都平丈我)’라고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당나라 시대의 소설 이야기가 소개된 것으로 보아,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오독(誤讀)에 착안한 이러한 패턴의 문자 미타테는 한중소화에서 일찍이 공유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특히, 『명엽지해』에는 중국소화의 이 같은 문자 미타테의 영향이 가장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한편, 중국소화의 문자 미타테에는 비슷한 한자 세 개를 나열한 형태가 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소부』권13, 「외태공(外太公)」에는 ‘대(大)’, ‘태(太)’, ‘견(犬)’의 세 글자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다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는데, 첫째 날은 대(大)자를 가르쳤다. 둘째 날에 태(太)자를 써 보이고는 기억력을 확인했다. 그러자 아이는 역시 대(大)자라고 하기에, “속에 점이 한 개 많잖니. 이견 속칭 태공(太公·증조부)이라고 할 때의 태(太)자란다.”하고 가르쳤다. 셋째 날에 견(犬)자를 쓰고는 뭐라고 읽느냐고 묻자, 아이는 “이건 태공의 태(太)자입니다.”라고 한다. “점이 바깥에 있는데 어째서 이것도 태(太)자라는 거지?” “이건 외태공(外太公)의 태(太)자겠죠.”³⁶⁾

대(大)자 안쪽에 점을 찍은 태(太)자가 내태공(內太公)이면, 바깥쪽에 찍은 견(犬)자의 경우는 외태공(外太公)이 된다는 역시 대답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역시, 비슷한 한자의 착각임과 동시에, 비슷한 한자의 연상이라는 미타테의 요소가 가미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개 이상의 비슷한

一座大噓) 시귀선 외,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504쪽.

36) (有教小兒字者、第一日、教以大字矣、明日寫太字問之、試其認性、兒仍曰、大字因教之曰、「中多一点、此即俗呼太公太字也」、又明日、寫犬字問之、兒仍曰、「此太公的太字」師曰、「点在外面、如何還是太字」答曰、「這是外太公的太字」) 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한.

한자들을 전개시키는 이 같은 방법은 삼자음(三字音)의 소화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부』 권10, 「근시(近視)」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근시인 형제가 함께 어느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 대청을 오르려다 보니 머리 위에 ‘유청당(遺淸堂)’이라고 쓰인 현판 액자가 걸려 있었다. 위의 형이, “이 집 주인은 신장이 허한 것 같군. 안 그렇다면면 어찌서 ‘유정당(遺精堂)’이라고 쓰여 있겠어?” 그러자 둘째가, “그렇지 않은데! 이 집 주인은 도(道)를 좋아 하니까 저렇게 ‘도정당(道淸堂)’이라고 쓰여 있잖아?” 라며 서로 우기길 그치지 않다가, 결국은 막내 동생의 짧은 눈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막내 동생, 눈을 크게 뜨고 보더니 말하길, “형님들은 두 사람 다 엉터리네. 위 어디에도 현판 따윈 걸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는.”³⁷⁾

‘청(淸)’자가 ‘정(精)’자 및 ‘정(淸)’자와 비슷한 점과, ‘유(遺)’자와 ‘도(道)’자가 서로 비슷한 점에 착안한 미타테라 할 수 있다. 견(遣)자와 유(遺)자도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관계로 이 이야기에서 ‘청정정(淸精淸)’ 삼자음의 착각을 다루었다면 원문에 보이는 ‘유유도(遺遺道)’ 역시 ‘견유도(遣遺道)’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필자 개인적으로는 자꾸만 들지만 아직 확증은 없다.

아무튼 이 같은 패턴의 미타테가 발달한 것은 삼자음 주령소화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⁸⁾

참고로, 이처럼 삼자음 문자유희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발달하게 된

37) (兄弟三人皆近視、同拜一客。登其堂、上懸遺淸堂扁。伯曰、「主人病怯耶。不然何為寫遺精堂也。」仲曰、「不然。主人好道。故寫道精堂耳。」二人爭論不已。以李弟少年力、使棄之。李弟張目曰、「汝二人皆安。上面那得有扁。」) 인용은 일본국립 공문서관 소장본 『笑府』(13권 4책)에 의한.

38) 줄고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酒令)형 소화」, 『동양학』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09.

pp.24-36에 소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사와다 미즈호(澤田瑞穂)씨에 의하면, 강서 지방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택 건물들에 ‘堂堂堂’ ‘亭亭亭’이라고 똑 같은 삼자음의 이름을 붙이자, 찾아 온 손님이 왜 ‘洞洞洞’은 없냐고 비꼬았다는 이야기가 원나라 시대의 소화집 『패사(裨史)』를 비롯한 중국 역대 소화집에 보인다고 한다. 澤田瑞穂, 『笑林閑話』, 東方書店, 1985, p.18.

배경에는, 역시 비슷한 한자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상의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이 학습서인 『오노노 다카무라 우타지즈쿠시(小野篁歌字盡)』(1662년 간행)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그림 16> 참조³⁹⁾

아무튼 에도시대의 학자인 오타 난포(太田南畝)의 『이치와 이치젠(一話一言)』에 보이는 「이미키우타(巳巳己歌)」나⁴⁰⁾ 『동국골계전』에 보이는 삼자음 언어유희에서도 알 수 있듯이⁴¹⁾, 비슷한 문자 혹은 동음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 착각과 능동적 연상연결은 이미 그 속에 소화의 방법으로서의 미타테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9) 그림 속에 보이는 내용을 번각하면 다음과 같다. (이(巳) 자는 위에, 코(己) 자는 아래에 붙는다. 미(巳) 자는 모두 떨어지고, 키(己) 자는 모두 붙는다. 巳に上/己は下に/つきにけり/巳はみなはなれ/己はみなつく/すでにかみ/おのれはしもに/つきにけり/みはみなはなれ/つちはみなつく) 또한, 이 책에서는 같은 부수가 들어가는 비슷한 한자를 네, 다섯 개씩 묶어 5/7/5/7/7 조로 읽고 외우도록 해 놓았는데, 나무 목(木) 변에 봄 춘(春), 여름 하(夏), 가을 추(秋), 겨울 동(冬), 그리고 같은 동(同)자를 연결한 「춘가추중동(椿榿楸桐)」을 읊은, 「봄은 동백나무/ 여름은 팽나무/ 가을은 가래나무/ 겨울은 구골나무/ 동은 오동(春つばき/夏はゑのきに/秋ひさぎ/冬はひらぎ/同はきり)」가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40) 그만둘 이(巳) 자는 가운데가 떨어지고 이미 란 뜻이 있으며, 미(巳) 자는 위에, 코(己) 자는 아래에 붙는다. 미(巳) 자는 모두 떨어지고, 키(己) 자는 모두 붙는다. (巳ヤムイナカスデニ 巳ミハカミニツクシノコウエヤ 己オノレツチノトキコ下ニツク) 日本随筆大成編輯部 『日本随筆大成』別巻 第一巻, 吉川弘文館, 1996, p.235.

41) 『동국골계전』제14화에서는, 선비들이 모여 한 글자가 서로 다른 3가지 음(평상거립의 4성 포함)이 나는 경우를 돌아가며 말하는 주령이 보이는데, 각자 ‘행항항(行行行)’, ‘설열세(說說說)’, ‘요약락(樂樂樂)’, ‘중동동(重重重)’을 돌아가며 말하자 마지막 한 사람이 ‘사기이(巳巳巳)’라 말하며 억지를 쓰는 장면이 보인다. (有儒士五人會飲作酒令曰、一字而三音意味醞甘、一人曰、「行行行、飴水喫砂糖」、一人曰、「說說說、能脂合清蜜」一人曰、「樂樂樂、醇酒和馳駱」、一人曰、「重重重、香閣雲雨濃」一人最後苦吟曰、「巳巳巳、白粒持掃市」四人曰、「巳巳巳非一字、白粒非醞甘」其人曰、「三字畫同、白粒持掃市砂糖在是、清蜜在是、馳駱在是、雲雨亦可濃也。豈不醞甘乎」) 동국대학교부설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헌실화전집』, 민족문화사, 1981, 218-219쪽.



〈그림 16〉 『小野篁歌字盡』 첫 번째 한자4개는 이코미키(巴巳巳巳)

V . 결론

이상, 동아시아 소화 속에 보이는 미타테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한중일 삼국 소화 속에 보이는 미타테는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된 방법상의 유사점도 보이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한중소화에서는 외모 같은 신체적 약점을 미타테로 부각시키는 패턴이 발달한 반면, 일본소화에서는 인간의 신분이나 직업상의 기질을 미타테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신체를 다룬 소화가 소화집에서 하나의 부를 구성하는 중국소화의 경향과, 역시 인간의 기질을 다룬 가타기 모노(氣質物)라는 골계장르가 특히 발달한 에도 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문자의 미타테에 있어서 한중 소화에서는 전통적인 파자형의 문자 미타

테가 발달한 반면, 일본소화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의 문자들을 연결 내지는 결합시키는 복합형의 문자 미타테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자와 한자의 파자와 결합이 아닌, 한자와 가나 문자의 연결과 복합은, 일본문학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소화에 보이는 문자의 착각을 소재로 삼은 소화에는 역시 소화 제작자의 미타테 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삼자음 형태의 비슷한 한자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에 대한 문자 미타테 발전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付記〉 귀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본문에는 미처 신지 못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에서 다룬 미타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와 그 개념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미타테는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유하려는 대상과 너무 비슷해지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미타테를 할 때에는 일부로라도 비유하려는 대상과의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점도 한 특징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선인장 미타테의 경우, 만약 모양이 거의 똑같은 다른 물건으로 미타테 하였더라면 결코 웃음은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형태가 대충 비슷하되 어딘가 다른 해삼으로 미타테 하였기에 웃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타테는, 얼마나 똑같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적당히 비슷한 두 사물의 어딘가 다른 차이점을 노출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미타테 또는 비유가 일본과 중국소화에서 특히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 및, 일본의 히라가나 문자 역시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가령 예를 들자면, 히라가나 '아(あ)'자는 '안(安)'자를 미타테 한 것이라는 등등의 사실에서 그러한 발달을 가능케 한 양국의 문화적 토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소화의 영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미타테 관련 자생소화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소화의 성립성격의 상이와도 관련이 있다. 즉, 중국 및 일본의

소화는 웃음을 제공하는 이야기꾼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허구가 많기 때문에 기교로써 미타테 또는 비유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반면, 한국소화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적인 미타테가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한편, 유사한 한자나 파자관련 소화의 경우, 한국소화에는 중국소화의 영향이 거의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 이 점, 중국소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다른 발달양상을 보이는 일본 소화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이면서도 한일 양국소화에서 보이는 미타테 관련 소화의 이 같은 상이한 경향은, 원형(原型)의 형식과 틀을 그대로 보존하고 따르는 것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와, 처음에는 열심히 모방하다가, 점차 개량하여 다른 것과 섞거나 변형시켜 버리는 것에 익숙한 일본문화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중국에는 없는 한자인 국자(国字)(예를 들면, 「働」「噺」「凵」「畑」「峠」「榭」「辻」「匂」「込」「躰」등등)가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이나, '일개월(一ヶ月)'이라는 일본어에 쓰이는 'ヶ'가 한자 '개(个)'의 개량의 결과라는 사실 등에서도 또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금영진,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 소화」, 『동양학』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
- 김지영, 「우키요에 표현기법으로서의 미타테연구」, 『日本思想』 8, 2005.
- 동국대학교부설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민족문화사, 1981.
-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시귀선외,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 유몽인, 『어우야담』 원문편, 신익철 외 옮김, 돌베개, 2006.
- 허은주, 「고전문학의 근세적 수용-복식에 나타난 미타테(みたて)문양을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30, 2005.
- 정재철, 「동아시아 근대 한문산문의 한 국면 - 김택영의 중국산문 비평과 그 의미」, 『日本学硏究』 35집, 2012.
- 정 형, 「‘에도(江戸)’의 표상을 통해 본 일본인의 심상(心象)지리적 문화기층 연구」, 『日本学硏究』 25집, 2008.
- 박광현, 「‘우리’안의 일본 문화론 - 은폐와 재생의 ‘신화」, 『日本学硏究』 23집, 2008.
- 구정호, 「고대일본사회의 점(占)에 관한 고찰 - 만요슈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学硏究』 16집, 2005.
- 康志賢, 『<膝栗毛もの>絵双六に現れた江戸表象文化考』, 『日本硏究』 39호, 2009.
- 高永欄, 「『浮世親仁形氣』の人物像に關する小考」, 『日本学硏究』 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 甲斐勝二, 「新・中国語文教学の周辺(其1):言葉遊びを巡って:宋連昌《漢字謎語》前言翻訳」, 『福岡大学人文論叢』 38/2, 2006.
- 日本隨筆大成編輯部, 『日本隨筆大成』 別卷 第一卷, 吉川弘文館, 1996.
- 周作人, 『明清笑話四種』, 人民文学出版社, 1958.
- 莊司格一, 『中国の笑話:笑海叢珠・笑苑千金』, 筑摩書房, 1966.
- 武藤禎夫, 『噺本大系』 第2, 5, 6, 8, 9, 10, 13, 19卷, 東京堂出版, 1976.
- 馮夢龍編, 『笑府』 十三卷四冊, 日本国立公文書館所藏本.
- 宋協毅, 「中国の漢詩と近代律詩について」, 『日本学硏究』 35집, 2012.
- 長島弘明, 「近世文學における「江戸」像 - 上方から見た「江戸」・江戸から見た「江戸」 - 」, 『日本学硏究』 22집, 2007.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in
Chinese and Korean Comedic Stories and the *mitate* of
Japanese Comedic Stories

Keum, Young-Jin

A kite in Japanese is the octopus. The reason is that when they saw the tail of the kite, they remembered the foot of octopus. And this kinds of associative action is called a *mitate*(見立て) in Japanese. *Mitate* is similar to metaphor, but these two concepts are somewhat different in causing laugh. Korean and Chinese comedic story's metaphor cause laugh by similarity of two things, but Japanese comedic story's *mitate* cause laugh by dissimilarity of two things. Chinese and Korean comedic stories focus on 90%'s similarity of two things, but Japanese comedic stories focus on 10%'s dissimilarity of two things. So, in this paper, I tried to consider the *mitate* of comedic stories of East Asia, and I found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three features.

First, we can see the tendency of Chinese and Korean comedic stories's *mitate* concern on the human body's physical weakness. But, Japanese comedic stories subject to not the human body's physical weakness but the human's professional or identification temperament.

Second, East Asian's comedic stories *mitate* which related character and word play came from the method of de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for that area's people have used Chinese characters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are different cases in Japanese comedic story's Chinese characters *mitate*, where that characters *mitate* is combined with two different type's characters, for example, to associate one Chinese character and another Japanese characters, *hiragana* or *katakana*.

Third, there are next type's *mitate* which came from mis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s, it can be seen in Chinese and Korean comedic stories. Perhaps, this pattern related with Chinese three syllable's character pattern, which is a Chinese traditional word and character play.

Key Words

comedic stories, mitte, character play, East Asia, association

논문접수일: 2015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9월 07일

게재확정일: 2015년 09월 08일